

사 램 사 랑

회원통신 제38호(98/2/20)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서대표 2월 5일 출소,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

먼저 서대표님의 석방을 위해 애써 주신 변호인단과 운영·자문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표께서 지난해 11월 4일 체포되어 2월 5일 석방될 때까지 95일 동안 사랑방이 대표 부재라는 상황에서도 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방을 사랑해주는 많은 분들의 도움 덕택이었습니다. 이번 만큼 사랑방이 많은 사람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보내주시는 한 마디 전화와 건배시는 악수에도 저희는 무척 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내 일처럼 안타까움과 분노로 함께 해주셨던 국제인권단체들과 해외동포들의 연대는 무엇보다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서대표는 2월 9일부터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면서 예전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속 중에 밀렸던 일들을 챙기는 와중에 최근에는 강기훈씨 사건이 대두되는 상황을 맞아 더욱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는 소식지에 서대표의 편지를 동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바쁜 일정으로 편지를 쓰지 못해 불가피하게 편지는 보내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표의 법정 모두진술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를 이번 호에 전문 게재할 예정이었으나, 서대표 본인의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호에 게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는 보통 8면을 내던 것을 4면으로 줄여 내게 되었고, 시간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점 깊은 양해 바랍니다. 모두진술을 비롯한 법정심리과정 등 서대표 구속 사건에 대한 주요 자료를 묶은 자료집을 3월초에 공대위 이름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이 자료집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새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정세 속에서 새로운 각오로 인권운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 일동 드림

운영위원회 개직 공고

오는 27일(금) 오후 6시 사랑방 사무실에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운영위원회를 개직합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 재편을 비롯한 사랑방 조직재편, 사랑방 사업에 대한 장단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서대표 출소 후 저음 열리는 이 운영위에 운영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 / 업 / 보 / 고

(98년 1월 셋째주부터 2월 둘째주까지)

인권운동가 자금심 세운 서대표

1월 30일 첫 재판, 법정 성황

서준식 대표의 첫 재판이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에 걸쳐서 서부지원 304호에서 단독1부 최정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고영구, 최영도(민변 회장), 윤종현, 차병직, 이석태 변호사 등 11명의 변호인과 가족을 비롯한 민가협, 유가협 가족들, 신창균 선생, 박형규 목사, 김승훈 신부, 최이레나 수녀 등 어른들, 영화계 관계자, 인권단체, 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등 150명 이상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좁은 법정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법원직원들이 출입구를 통제하는 가운데 복도에는 법정엔 들어가기 위해 20미터 이상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의 시작은 서대표의 사복착용 신청 부분을 변호인단이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구속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판사로도 이름을 남길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관례를 강조해 결국 사복착용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서준식 대표는 1시간 가량의 모두진술을 통해 자신의 인권운동관과 공안당국의 헌법에 어긋나는 법집행을 질타해 많은 방청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방청객들은 서대표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답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어진 검찰신문에서 검찰은 서대표의 과거행적까지 들춰내면서 서대표의 이적성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줄곧 서대표가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인권의 대의에 입각하여 부당한 법의 문제와 법집행기관인 검찰의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특히 고영구 변호사님의 적절한 지적은 관록있는 노 변호사의 모습이었다고 방청객들이 입을 모았습니다(첫 재판 자세한 내용은 3월초 발간되는 자료집에서 자세히 정리합니다).

결국 첫 재판은 4시간 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것을 이유로 2월 20일로 잡혔던 재판 일정을 무기 연기하면서 추후 지정하겠다고 하여 재판은 상당기간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대표 씨네21상 수상

서준식 대표는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 허리우드 극장에서 열린 제3회 씨네 21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영화인들의 잔치인 이번 시상식에서 지난해 인권영화제와 관련 구속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과정은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38명의 영화인들의 투표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서준식 대표와 함께 접촉을 만든 명필름이 동수의 표를 얻어 공동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수상식에서 서대표는 “오늘이 큰 딸의 생일인데 생일선물이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 인권영화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인권운동가들과 영화를 통해 착한 일을 하려는 영화인들의 행복한 만남이었다.”면서 “2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버텼다. 제3회 인권영화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에서는 서대표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주었지만, 상금은 없었습니다.

민변 공모 인권논문상 준비

인권교육실이 인권논문을 쓰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민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공모하는 논문상에 사랑방에서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한 논문을 내기로 하여 준비중입니다. 인권교육 문제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인권교육의 황무지인 우리 현실을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될 이 논문은 사랑방이 앞으로 진행할 인권교육의 방향을 정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월 15일 마감일을 넘긴 상태에서 시간에 쫓기며 하는 작업이 얼마나 충실하게 결과물로 나올지는 매우 궁금한 상태입니다. 사랑방은 논문을 검토하여 내용이 부실하면 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조명받는 강기훈 사건

91년 김기설 유서대필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강기훈씨 문제가 최근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필적 감정을 맡았던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가 최근 비무장지대 토지시공단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에 언론사에 매일 문의가 취재와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sbs는 91년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사건 방영을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제작해 방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대응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가보안법 국제 캠페인 책임 단체로

98, 99년 2년간 전개될 아태지역 국가보안법 국제캠페인에 사랑방이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태지역인권촉진모임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사랑방과 민가협, 민변이 책임단체로 참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책임단체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가능한 단체와 개인들을 포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고대법대 학생들 24.5 양일간 인권연수

인권교육실에서는 23일에는 서울대 학생들 약간명과 24,5일에는 고려대 법대생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갖게 됩니다. 이번 인권교육은 올해 처음 갖는 교육입니다. 교육실은 올 상반기에는 인권교재 작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하던 사회복지학과 실습은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권태평여사등 자원봉사자 늘어

1월 중순부터 인권하루소식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김성욱씨가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자원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강기훈씨 어머니인 권태평 여사가 2월부터 매주 화,목 이틀간, 연세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배경내씨가 2월부터 1주일에 두 번씩, 학생운동을 하던 이영태씨가 군입대 전까지 6개월간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2월 18일부터 1주일에 4일을, 고려대생 심혜진씨가 1주일에 두 번씩 나와 자원봉사를 하는 등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등 자원봉사자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주 정의와 인권연대에서는 새로운 실무자를 2주간 파견하여 사랑방에서 인권업무를 익히는 연수를 받게 됩니다.

■ 서준식 공대위는 3월초 서대표 환영을 겸한 공대위의 진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사랑방은 3월초 사면복권에 맞춰 행정실태조사 작업을 위한 설문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천주교인권위, 광주인권지기, 전주 정의와 인권연대 등과 연대하여 전국 주요 교도소 앞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를 수거, 보고서 등을 작성, 행정문제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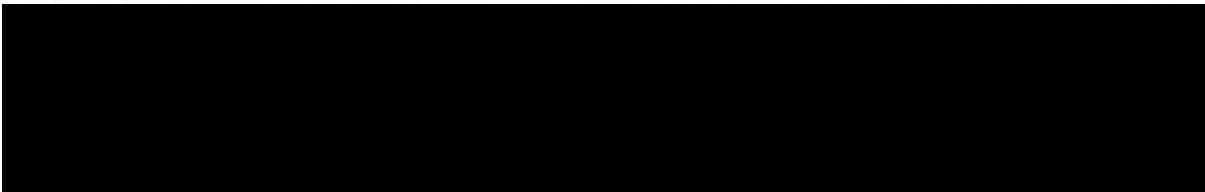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갖고 제2회 인권영화제를 평가하고, 제3회 인권영화제 준비하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98년 1월 재정보고
(97년 1월 16일 - 2월 15일)

전기이월: -2,098,713원

수 입		지 출	
회비	2,117,100	식비및 부식비	317,350
구독료	4,559,755	발송비	444,900
사업수익	541,750	복사비	370,865
후원금	350,000	사무비품	125,900
이자	236	사무실유지비	803,200
		간행물구독료및 자료비	242800
		통신·전화비	815,790
		사무기기	580,000
		연대사업비	150,000
		활동비	3,770,000
		기타	95,900
수입총액:	7,568,841원	지출총액:	7,716,705원
최종결산:	-2,246,577원		

<1월 자문·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IMF 시대를 맞아 재정상황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의 회비는 상근자들의 활동비, 사업비 등으로 매우 긴급하게 쓰입니다. 사정이 어렵더라도 밀린 회비는 꼭 청산해 주세요.

정인숙씨가 매달 10만원씩을 자동이체하는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이신지 알려주세요.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